■ 亞추진단·광주교대·광주MBC 공개강좌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28일 광주교육대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이해 강좌에서 이자스민씨가 다문화시대에 다문화가 한국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자스민 물방울 나눔회 사무총장

"이주민 함께 보듬을 때 다문화 한국의 힘이죠"

"No man is island.(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시대인 지금은 더욱 그래요. 다문화가 한국의 힘이 될때까지 노력해야죠."

28일 광주교육대 대강당에 모인 200여 명의 시민들은 한국에 살며 억척스러운 '한국 아줌마'가 되어버린 필리핀 이주여성 이자스민(36·물방울 나눔회 사무총장)씨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최하고 광주교육대와 광주MBC가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문화이해 네 번째 공개강좌에서 자스민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 속 이주민의 삶과 바람을 차분히 이야기했다.

" '다문화 시죠'하는 말을 흔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다문화'라는 말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하면 동남아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룬 가정을 대부분 떠올리더군요. 그러나 다문화 역시 기준만 조금 다르게 해서 보면 여러분과 다르지 않는 한국인의 문화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초 낯설었던 한국생활에 대해 그녀는 음식, 한글, 시어머니, 목욕탕 네 가지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한다.

"첫 번째로 한국음식은 매우 맵고 반찬 수 또한 매우 많았어요. 그리고 매번 비슷한 반찬이 상에 오른 것에 놀랐죠. 그 많은 반찬을 매일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무섭더군요.(웃음) 다음은 달걀과 계란, 양파와 다마네기처럼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가 너무 많은 한글을 배워야 했던 것, 말을 반복할 때마다 목소리 톤을 높이는 시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곤란했던 한국생활은 대중목욕탕이었다고 말한다. 너무 뜨겁고 아플 때까지 때를 밀며, 남들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하는 문화가 너무 놀라웠다고 전했다.

"시어머니와 처음 바구니를 들고 목욕탕에 갔을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목욕탕을 거니는 아주머니와 사람들을 보고 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목욕탕은 제게 문화적 쇼크였죠. 이후 몇 년간 목욕탕을 가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자스민씨는 왜 목욕탕을 가야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점차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때 깨달았죠. 목욕탕은 대한민국이고, 저는 한국에 온 이주민. 내가 등을 밀어주었던 등이 넓은 아주머니는 한국인으로 생각하면 한국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구요."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수준에 대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진단하는 그녀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주 여성이 많아지고, 그들의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하인스 워드 처럼 훌륭하게 자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그녀는 진주를 품은 굴 사진을 보여주며 "굴에 이물질이 들어가 진주가 되듯 이주민을 굴속의 이물질로 생각하고 품어주면 좋겠다"며 "굴이 자신의 환경을 바꾸는 아픔을 겪고 진주를 만들어 내듯, 이주민들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진주가 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7년을 한국에서 살아온 자스민씨는 지난 2005년 '외국인주부가요열창'에 출연하면서 방송인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다큐멘터리 번역가, 이주여성 극단 '샐러드' 단원, (주)에버스인터내셔널 해외무역부 과장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360-212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꽃·사람들…남종화에 色을 입히다

허임석展 5월 3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남종화맥을 잇고 있는 한국화가 허임석씨가 5월3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그는 허씨는 소치-미산-의재의 화맥을 계승하고 있는 금봉 박행보의 제자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바람이 이니'를 주제로 남종화에 화려한 채색을 곁들인 수묵채색 작품을 선보인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모습과 나체로 악기를 부는 자유로움을 생생하게 표현했고, 정교하게 표현된 새와 나비, 꽃, 말은 화면에 안정감을 준다.

산수화의 여백 대신, 화면 가득 단아한 색을 넣어 독창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소년과 소녀의 모습을 통해 순수한 세상을 형상화했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민국서예대전 특선, 의재허백련미술상, 광주시전·전남도전 대상을 받았다. 8차례 개인전과 수십 차례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가족'

"봄이 왔어요 요들레잇디~"

광주 엔시안요델클럽 30일 정기연주회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엔시안요델클럽(회장 김성준·사진)이 30일 오후 6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21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지난 1977년 창립된 광주엔시안요델클럽은 알프스 자연을 노래하는 요들송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해 매년 다양한 공연들을 펼쳐온 그룹이다.

'봄이 오는 소리, 요들 축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알프스 축제', '우거진 숲', '아름다운 산장, '숲속의 요정' 등의 노래를 들려주며 알포혼, 오르겔리, 카우벨 등 알프스 민속악기 연주도 곁들여진다. 출연자는 김숙남·김기숙·장승일·장미정·이관영·김성범·박관수씨 등이다.

한편 엔시안요델클럽(www.jodel.kr)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1·3주 토요일 오후 4시 광산구청소년수련관 1층에서 정기모임을 갖는다.

문의 010-6485-44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황선미 동화 2편 100만부 눈앞

'마당을…' '나쁜 어린이 표' 동시 돌파 화제

황선미 작가의 장편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과 '나쁜 어린이 표'가 100만부 출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100만부를 돌파한 아동서적이 없었을 뿐더러 한 작가의 작품 두 편이 동시에 이같은 성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판사 사계절은 28일 "'마당을 나온 암탉'이 지난 25일 출고 기준으로 99만 부를 넘어섰다"며 "다음달 초 100만 부 출고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웅진주니어도 "'나쁜 어린이 표'가 다음달 초에 100만 부 출고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고(故) 권정생 작가의 그림책 '강아지똥'(길벗어린이) 역시 5월 중 100만부 출고를 넘길 것으로 예상돼 아동출판계에 기념비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제 56회 호남예술제 성악 독창 수상자

〈심사위원〉
이은철(전남과학대교수)
조수현(광신대교수)
홍승연(광주교육대교수)
김영지(초당대교수)
조규철(전남대겸임교수)

◇초등부 1·2학년
▲최고상
64 차윤서(화순제일2)

▲금상
8 김해민(문흥중앙2)
17 김규림(살레시오1)
21 김해솔(연제1)
70 오주원(목포영산1)
▲은상
31 김하윤(살레시오1)
33 박서영(신암2)
42 임서진(문정2)
46 최승우(살레시오1)
48 김경현(광주삼육1)
56 장예린(광주남2)
61 조서영(살레시오2)
73 조성준(살레시오2)
▲동상
24 이서연(연제1)
28 이은경(금당2)
32 전건우(불로2)
36 이시욱(살레시오1)
39 조은아(신창2)
59 이은우(금당2)
63 이승민(문산2)
65 임효정(살레시오2)
72 강가빈(만호1)
74 황수련(금당2)

◇초등부 3·4학년
▲최고상
62 한승민(하백4)
▲금상
7 최혜민(불로3)
35 박효진(살레시오3)
45 한 진(순천왕운4)
▲은상
10 오영서(광주교육대목포부설4)
11 장수화(목포석현3)
17 백승리(장흥3)
22 김시온(광주효덕3)
23 김서현(광주송원4)
41 조수현(문정3)
42 문혜진(빛고을4)
61 강하은(화순제일3)
76 조수영(화개4)
▲동상
5 이지솔(살레시오4)
34 정유진(불로3)
37 이수아(광주송원3)
38 서정민(진만4)
40 오동현(광주삼육4)
43 김태윤(풍암4)
44 이시열(광주교대부설3)
48 민소정(광주효덕3)
51 김민서(금당4)
58 양재은(연제3)
69 임나영(유안3)
73 심정윤(불로3)
77 최지은(광주남3)
81 김 송(금당4)
83 김아현(금당4)

◇초등부 5·6학년
▲최고상
43 이정기(목포석현5)

▲금상
1 정다솔(진월5)
8 김희언(강진중앙5)
44 박지우(풍영5)
49 김소연(연제5)
50 고혜림(광주송원6)
▲은상
15 이소윤(수완6)
20 이지우(금당5)
21 김다은(양지6)
28 한유진(광주송원5)
32 양서연(진월6)
51 장지원(불로5)
54 박은서(문산5)
▲동상
6 김한수(첨단6)
13 강예은(유안5)
18 임이랑(유안5)
22 이진우(목포용해6)
23 김민석(광주송원5)
34 한은지(봉선6)
39 마서영(조봉5)
40 김보라(수완6)

※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인물사진 2매를 5월 6일까지 본사 문화홍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따뜻한 봄 즐거운 영화와 함께하세요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상무점 향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하남점

상무점		하남점	
1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1관	토르-천둥의 신(12세)
2관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이별 (15세) 제인에어 (12세)	2관	분노의 질주-언리미티드 (15세)
3관	적과의 동침 (12세) 더 라이트:악마는있다 (15세)	3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4관	적과의 동침 (12세)	4관	토르-천둥의 신(12세)
5관	마오의 라스트 댄서 (전체)	5관	적과의 동침 (12세)/제인에어 (12세)
6관	토르-천둥의 신(12세)	6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7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7관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이별 (15세) 더라이트-악마는있다 (15세)
8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분노의 질주-언리미티드 (15세)	8관	분노의 질주-언리미티드 (15세)
9관	토르-천둥의 신(12세)	9관	마오의 라스트 댄서 (전체)
10관	분노의 질주-언리미티드 (15세)	10관	적과의 동침 (12세)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토르-천둥의 신(12세)	최고급관
2관	적과의 동침 (12세)	
3관	제인에어 (12세)/분노의 질주-언리미티드 (15세)	
4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5관	토르-천둥의 신(12세)	
6관	마오의 라스트 댄서 (전체)	
7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8관	더라이트-악마는있다 (15세)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이별 (15세)	
9관	분노의 질주-언리미티드 (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황금주차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분노의 질주-언리미티드 (15세)
2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3관	적과의 동침 (12세)
4관	한나 (15세)/제인에어 (12세)
5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이별 (15세)
6관	적과의 동침 (12세) 토르-천둥의 신(12세)
7관	토르-천둥의 신(12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